

“1만 조선인 고통 서린 징용시설을 세계유산 등재라니 말이나 됩니까”

광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나가사키 군수시설 등 답사

“강제로 끌려온 섬에서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 했을까요. 1만여명의 조선인의 고통이 서린 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9일 “일본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시설을 둘러본 결과, 원자폭탄의 위력과 피해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징용시설이 태반이었다”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앞서 지난 3~7일, 일제 식민지 시절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가 노역을 시킨 나가사키 일대 군수시설을 답사했다.

주요 방문지는 최근 일본정부가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 추진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글로버 저택’을 비롯한 일본 나가사키 일대 일제 강제 징용 시설 20여곳이다.

답사단의 첫 방문지는 원폭 낙하 중심지 인근에 지어진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과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였다. ‘나가사키 제일 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은 1979년 나가사키 시민들과 모금운동을 벌여 추모비를 건립했다. 추모비의 한국어 안내판에는 “우리를 잃은 일본 사람들이 얼마간의 돈을 모아 이곳 나가사키에서 비참한 생애를 보낸 1만여명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 19명은 지난 5일 오후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일본 사키토 탄광을 방문해 조선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의식을 치렀다. 지난 2010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키토 탄광 광부 3명 중 1명 꼴인 1700여명은 조선인이었다.

의 조선 사람을 위하여 이 추모비를 건설하였다”라고 적혀있다.

답사단이 찾은 또 다른 징용시설은 수미요시 터널 공장이다. 이곳은 미쓰비시 나가사키의 어뢰 제작소였다. 일제는 이곳에서 조선인 1000명을 끌고와 군수품을 만들었다.

‘귀신섬’이라는 악명이 높은 사키토 탄광은 ‘군함도’라고 불리는 하시마 탄광, 다카시마 탄광과 함께 나가사키의 강제동원 3대 탄광 중의 한 곳이다.

이 탄광에는 조선인 1700명이 강제동원

했다.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사키려는 군함도 방문은 순성한 배의 엔진 고장으로 불발됐다.

결국 시민모임은 경유지 이오지마 섬에서 강제 동원돼 고국을 그리며 숨겨진 조선인을 추모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다.

시민모임을 따라 배에 올랐던 중년 일본 남성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며 추모식을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답사단이 둘러본 시설 곳곳에서는 역사

로 끌려와 조국이 아닌 일제를 위해 청춘을 버려야 했던 조선인들의 한이 서려있었다.

답사단을 이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인 상임대표는 “징용시설 곳곳에 전경의 아픔을 알리면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시민이 조선인을 끌고 가 강제노역 시킨 군수시설을 유네스코 시설로 등재하는 것을 함께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한·일, 징용시설 등 日 세계유산 등재 이견 팽팽

양국 대표단 2차 협의...정부, “이견 해소 노력” 日에 문안 제시

정부는 9일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일본 측과 “이견 해소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날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달 22일에 이어 2차 협의를 가졌지만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추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 측에서 최종문 유네스코 협력대표가, 일본 측에서 신미 준(新美潤)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사관 겸 스포츠담당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제안한 문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

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일본 측에 구체적 타협 방안을 담은 문안을 제시한 사실을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등재 권고안’에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만큼, 문안에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다. 정부는 일본 측이 등재를 추진하면서 1850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한정했지만 이코모스가 ‘전체 역사’를 권고한 만큼 1940년대에 집중됐던 조선인 강제노동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측이 제시한 문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여서 타협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형뉴스】

취중 교통사고 낸 50대 집유 피해자도 음주운전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모(·37)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2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박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박씨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73%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음주 운전으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6, 물결 00:46, 물결 13:00

뜨거운 '맹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8/32	보성	맑음	15/28
목포	맑음	18/27	순천	맑음	18/30
여수	구름많음	18/26	영광	맑음	17/31
나주	맑음	16/32	진도	구름많음	17/27
완도	구름많음	17/27	진주	구름많음	15/32
구례	맑음	16/32	군산	구름많음	16/30
강진	맑음	17/28	남원	구름많음	15/30
해남	구름많음	17/28	흑산도	맑음	16/22
장성	맑음	16/31			

◇바다 날씨

시해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동~동	0.5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0.5~1.0	남동~남	0.5~1.5
남해	서부	북동~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1.0~1.5	남동~남	1.0~1.5
남해	서부	남동~남	0.5~1.5	동~남동	1.0~1.5

◇생활지수

식중독	35
운동	5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59	00:33
	20:33	13:22
여수	밀물	썰물
	02:45	09:13
	15:31	21:24

◇주간 날씨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	☁	☁	☁	☁	☁	☁
20/26	19/30	18/30	18/30	18/30	18/30	19/29

세월호 구명뗏목 부실점검 업체 사장

실형 원심끼고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광주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 해양안전설비 사장 송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사인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공동 운전자였던 이모(41)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 '단체행동' 관련

행자부, 집행부 6명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

행정자치부가 성과상여금(성과급) 재분배 문제를 두고 구청장과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 서구 공무원 노조 집행부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9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행자부는 청사 로비 등에서 농성하는 등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주도한 서구청 공무원 노조 집행부 6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서구에 통보했다.

지난 5월 서구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한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단체행동 금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노조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나머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구 노조 관계자는 “징계 결과를 보고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론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텔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